

2014 상반기 해외 공정여행 수기집

# 꽃누나들의 공탁 공탁 파나이섬 공정여행기



icoop생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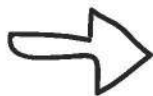
PANAY FAIR TRADE CENTER  
Philippines

공정여행  
공정만세



꽃누나들의 공약 공약<sup>♡</sup>

파나이섬 공정여행기<sup>♡</sup>



## 떠나보세요, 공정여행

우리농업지킴이 회장 정현화

공정여행 공지가 났을 때 바로 신청하지 않고 머뭇거렸었다. 신청자가 많으면 다음기회에 신청하기로, 그러나 의외로 신청하는 활동가분들이 적어 참석하게 되었다.

연수가 아닌 여행이기에 고민 없이 가볍게 출발했다. AFTC를 향해 소형버스는 달렸다. 지나면서 드문드문 있는 원두막 비슷한 걸 보면서 저 건물이 무엇일까 궁금했었다.

나중에 AFTC 의장남매를 방문하고 사람이 사는 집이라는 것을 알고 조금 놀라웠다. 필리핀은 땅도 넓은데 왜 저리도 집이 작을까? 몇몇 지주들이 필리핀 농촌의 땅을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 소작을 하면서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오랜 세월 스페인의 통치를 받아왔고 해방 후 제대로 잔당들을 정리하지 못한 것이 지금의 필리핀을 만들지 않았나 싶다.

AFTC에서 일로일로시로 넘어오면서 집들도 조금씩 다른 모습이었고 가족들조차도 통통해진 모습을 보고 빈부의 격차를 또 한 번 느끼게 되었다.

이번 여행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마을 잔치였다. 150명 정도 참석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음식을 준비 했었는데 500명 정도가 잔치에 참석을 해서 더욱 값진 공정여행 마을잔치였다.

아직도 나는 잊을 수가 없다. AFTC가 가까워졌을 때 저 멀리서 낮익은 건물이 보여 '이건 뭐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 우리 건물!' 빨간 지붕이 나의 가슴을 벅차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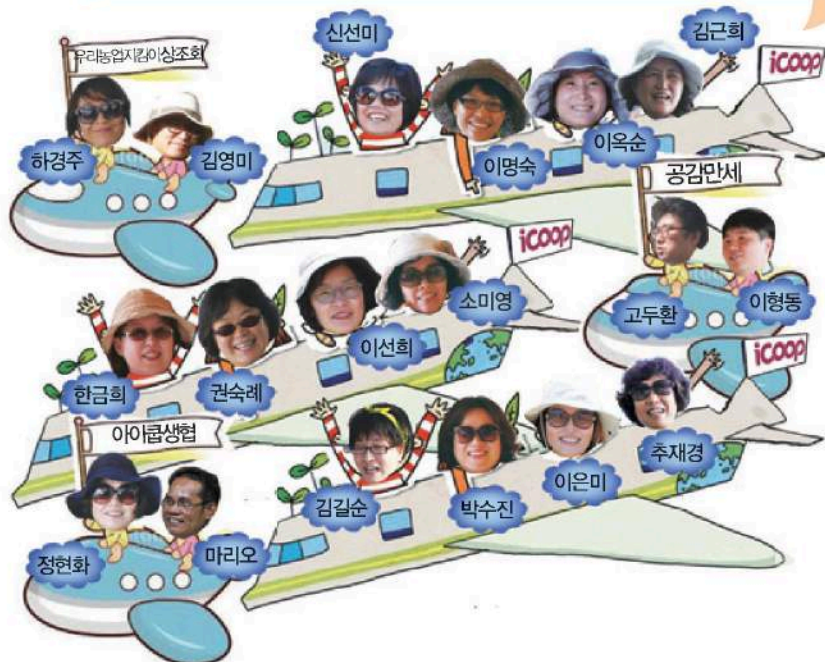
우리의 빨간 지붕들이 가난한 나라에 더 많이 도움 되는 그날을 기대해 보고 싶다.





# 꽃누나들의 콩닥콩닥 파나이섬 공정여행기

여수YMCA아이쿱생협 박수진



13명 꽃누나들의 이번 여행 첫 소감은 하나같이 '살렘'이 아닌 '망설임'이었다. 그리고 틈만 나면 "연수가 아닌 여행을 온 것이니, 이번 여행을 맘껏 누려~"라고 서로를 향해 외쳤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모두의 희망사항이었을 뿐 그 누구도 몸이 기억하는 활동가의 본능을 어쩔 수 없었다. 여행내내 상호회가 진행되는 활동마일리지 열매, '공정여행' 첫 참가자로서의 영광을 맘껏 누리기보다는 이 다음에 올 다른 활동가들을 위해 필요하다는 엉덩이만 붙였다하면 삼삼오오 모여서 여행에 대한 '토론의 장'을 열었다.

말이 '토론의 장'이지 상상이 가는가?

프로그램 하나 진행할 때마다 각각 한마디씩 최소 13마디는 쏟아내야 직성이 풀리는 13명의 꽃누나들의 억척스런 수다가...

말 많은 꽃누나들을 중도 포기하지 않고 잘 보필해준 공감만세 귀여운 고릴라 두환샘과 케이팝스타가 무석하리만큼 민인의 인기를 한 몸에 받은 형동샘 그리고 상호회 하경주 국장님과 김영미 대리에게 먼저 감사드린다.

이번 여행이 가져다 준 AFTC(안티케공정무역센터), PFTC(파나이공정무역센터), 공감만세(청년공정여행 사회적기업), 아이쿱생협 간 서로의 노력과 신뢰를 기반으로 국내외 다양한 공정여행 열매들이 만들어져 더 풍성한 활동마일리지 성과로 남기를 바란다.



▲ 지도를 통해 본 4박 6일 꽃누나들의 여정

## 4박 6일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가 방문한 필리핀은 인구 1억, 우리나라보다 3배 정도 큰 면적을 가진 7,0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이다. 여러 나라로부터 500년이 넘는 식민 강점의 역사와 20여 년간의 독재정권 역사가 우리와 많이 닮아있는 나라. 60년대 아시아에서 가장 빨리 국민소득 1천불을 달성했던 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즈음에 성장이 멈춰버린 나라.

우리는 7,000여 개의 섬 중 아이쿱생협 조합원들이 2010년 10월 '달콤한 공장간접 캠페인'을 통해 세운 마스코바도 공장이 있는 파나이섬을 찾았다.

### 1일차 (인천공항 → 칼리보 → 안티케 주 벨리손 → AFTC와의 만남)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3시간여 만에 칼리보 공항에 도착하니 PFTC의 활동가 마리오씨와 렌넌, 공 김만세 스텝인 이형동 팀장이 우리를 맞아주었다. 한국을 출발하기 전에 들길, 32~3도를 넘나드는 무더운 날씨는 소식에 내심 걱정 했는데 습도가 높지 않아서일까 약간의 그늘만 있어도 그럭저럭 견딜만했다. 점심때가 되어 도착하였기에 칼리보 공항 근처 이름 모를 작가들의 그림이 즐비한 식당에서 필리핀식 낯선 음식으로 허기진 배를 채웠다. 싸일로 샐러드와 망고 사베트 덕분에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낯선 음식과의 첫 만남을 무사히 치러 냈다.



- ① 입맛 까다로운 꽃누나들의 허기를 달래준 싸일로 샐러드
- ② 필리핀 국민의 예술적 감수성을 짐작케 한 3~4평 식당 벽면 가득한 그림들
- ③ 전시된 그림 중 활동가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은 작품



## AFTC가 있는 안티케주 벨리순군

칼리보에서 6명씩 총 3대의 승합차로 나눠 탄 우리들은 AFTC가 있는 안티케주 벨리순을 향해 비행기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끝없이 달렸던 것 같다. 자다 깨다를 반복하면서 언뜻언뜻 스치는 창밖 풍경으로 짐작컨대 오른편에 이국적인 풍경이 아름다운 해안가를 끼고 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필리핀 대중교통이라는 형형색색의 화려한 지프니와 색깔에 따라 가는 구역이 정해져 있다는 트라이시클에 가득 탄 사람들을 보면서 '아~ 인구가 많기는 많구나!' 다시 한 번 느끼며, 이 여행기간 동안 한번은 타볼 기회가 있겠지 내심 기대해 보았지만 타지는 못했다.

인구의 80% 이상이 카톨릭 신자인 필리핀은 마을 안에 반드시 성당과 공동묘지를 갖고 있다는 설명에 걸맞게 마을-학교-성당-공동묘지가 반복되는 모양이 어느 마을이나 비슷했다. 그래서 30분만 넘게 차를 타다보니 마치 마법에 걸린 것처럼 가던 길 또 가고, 좀 전에 만난 다리 또 만나고, 같은 마을을 다시 지나친듯한 착각에 빠진 듯 했다.



▲ 트라이시클



▲ 지프니



▲ 주로 서민이 이용하는 주유소(sea-oil)

## AFTC 활동가들과의 인상적인 첫만남

저 멀리 보이는 AFTC 공장의 빨간 지붕이 왠지 낯설지 않고 반가운 것은 그간 생협 소식지와 선배활동가들을 통해 이곳 AFTC의 소식을 접해서이기도 하지만 다니엘로 의장님을 비롯 AFTC 많은 활동가들의 공정여행팀을 배려한 정성어린 준비가 구석구석 배여 있었기에 더 그랬던 것 같다. 아이쿱생협의 공정여행팀을 그저 손님이 아닌 파트너이자 친구로 맞아주고, 낯선 음식으로 제대로 식사를 못했을 우리들을 위해 준비한 새침(쌀떡)과 저녁만찬 인근에서 구하기에 가격부터 여러모로 부담됐을 날찍한 그늘막과 탁자며 의자, 빼곡히 적어 준비한 활동가들의 자기소개까지...



마을차원에서 한 번도 이런 행사를 준비해본 경험이 없어 몇 달 전부터 긴장하고 준비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하지 않아도 될 것들까지 마음써주심에 한없이 미안하고 감사할 따름이었다. AFC의 환영노래에 소미영 이사장과 급조된 백댄서들의 새타령과 새타령을 Bird Song에서 펄리컨 Song으로 번역하는 산으로 가는 통역도 첫날 저녁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거들었다.

손바닥에 적어간 짧은 따갈로그어로는 우리의 감사함을 표현하기에는 부족함을 느꼈다.

‘꾸무스타포’(안녕하세요?), ‘마라밍 마사랍포’(대단히 맛있습니다), ‘살라맛포’(고맙습니다)



환영 현수막



AFTC 전경



공정여행팀을 위해 준비한 쌀떡 (쌀에 마스코바도를 넣어 만들)



다니엘로 의장



공정여행팀을 위해 준비한 대형 그늘막과 탁자



환영노래(를 하는) 엘리자베스(매니저) 자매와 그 친구들

자기소개를 2페이지 빼곡히 적어 준비한 로시타 외 활동가들



선물받은 코코넛 잎으로 만든 수공예 모자



## 2일차 (숙소 → AFTC → 생산지 체험 → 마을탐방 → 마을잔치)

이번 공정여행이 연수가 아님을 느낄 수 있게 해주었던 '아침 시간의 여유로움.' ^^ 오늘은 생협에서 준비한 단테티와 곰감만세가 준 스카프로 갈맞춤하고 숙소를 나섰다. '아~ 이곳이 필리핀이구나.' 알 수 있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코코넛 나무!

이곳 필리핀 정부에는 코코넛 나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을 만큼 코코넛 나무가 많고 또 버릴 것 하나 없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귀한 자원이라고 한다. 코코넛은 나무, 열매, 잎사귀까지 필리핀 국민들의 의식주에 고루 쓰일 뿐만 아니라 기름에 코코넛오일을 섞어 교통수단의 연료로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발화점이 낮아 달리다가 펑펑 방귀소리를 내며 간혹 서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가격이 싸기 때문에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었다. (SEA-OIL 주유소)

어제의 호사를 몸이 기억해서일까? AFTC에 도착하자마자 우리의 눈을 화~악 사로잡은 것은 참쌀을 코코넛잎으로 감싸 친 찰밥 '이보스'와 이것을 찍어 먹기 위한 마스코바도 시럽(조청과 흡사). 그리고 이보스와 찰떡궁합이라는 망고열매가 새참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일도 하지 않았는데 염치불구하고 허겁지겁 먹어버렸다.

먹는 걸 좋아해 평상시 다이어트는 생각 못하던 우리들! 이번 여행에서 '차라리 음식이 맞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다이어트하고 좋지' 하고 내심 기대 했던만 외국음식이 입에 맞지 않는다는 활동가들조차도 AFTC에서 준비한 음식은 먹어도 너무 잘 먹었다. ^^





비록 형식에 불과했을지 몰라도 사탕수수 수확, 물탱크 페인트칠, 마스코바도 생산과정 체험 등 작은 부분이나마 생산자들의 노고를 생각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오전에 과거 만나거나 해적들이 들었음직한 보기에도 무시무시한 커다란 칼을 휘두르며 "적성에 딱 맞아, 스트레스가 확 풀린다!"를 연발하며 단칼에 사탕수수를 싹둑싹둑 베어 내려 열정을 불살라보았다. 하지만 생산자들이 왕성히 일하는 새벽녘에는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었다. 페인트칠의 달인이라며 서로를 격려해보지만 뒤통자까지 할 것이 더 많아 보이는 것은 왜일까?! 그래도 마음만은 즐거웠다.

마스코바도 생산과정 체험은 그냥 넘어가기 아쉬우니 한 두 마디 설명을 보태자면 안티케에서 생산되는 마스코바도가 아이쿱생협으로부터 유기농 인증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과 생산지의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전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기구들이 스테인리스 재질로 되어있다는 것 어때세요? 설명할 필요 없이 느낌이 팍 오시죠?



▲ 이보스와 마스코바도 시럽



▲ 지금은 해적놀이 중 ^^



▲ 염불보다 잣밥에 ㅋㅋㅋ



▲ 품생품사

오후에는 탐정놀이를 하듯 마을탐방을 떠났다. 몇 달 전부터 우리가 가볼만한 곳을 물색하고 사진을 찍어 액자로 만들어서 한 쪽 벽면에 전시하는 것은 기본이었고, 생산자들이 만든 안티케 마을 그림지도, 거기다 준비성 철저한 로시타씨의 사진설명까지 있었기에 우리는 출발 전부터 마을 구석구석을 다녀온 것 처럼 눈에 선하게 느낄 수 있었다.

AFTC 마을여행의 일정은 ❶ 소박한 다니엘로 의장님 댁 ➡ ❷ 안티케 유일의 축산농가 ➡ ❸ 형형색색 아기자기한 재래시장 ➡ ❹ 동사무소 개념의 비랑가이 홀 ➡ ❺ 고등학교 과정의 벨리손 National School 로 이어졌다.



없는 건 없고,  
있을 건 다 있는 재래시장!



우리네 동사무소 개념의 바랑가이 홀



안티케 유일의 농장 (?)



벨리슨 내셔널 스쿨



출발 :  
AFTC (출발 전 사전설명)



다니엘로 의장님 댁  
생각보다 많이 소박했죠!



AFTC에서의 모든 시간들이 감동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그 중 꼭 하나만을 꼽으려면 2일차에 열렸던 마을잔치가 아니었나 싶다. 마을주민들을 초대하여 푸짐한 상을 차리고, 노래 부르고 춤도 추며 모두가 하나 되는 흥겨운 마을잔치. 북적거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낮에 만났던 벨리슨 내셔널 스쿨의 공연팀이 온다는 소문이 퍼져 더 그랬겠지만, 착각은 자유라고 멀리 한국에서 온 이 꽃누나들을 만나기 위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잔치마당에 왔을 거란 환상을 가져본다. 처음에는 150명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300명이 넘는 분들이 마을잔치에 오셨다고 한다. 인근 주민들이 거의 다 오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란다. 비록 준비한 음식이 부족해 AFTC 활동가들이 추가로 준비하느라 애는 먹었지만 그래서 더 감동하고 행복한 마을잔치가 될 수 있었던 것 같다. 덕분에 우리 꽃누나들도 잔치를 위해 때 빼고 광내 애써 차려입은 무대복이 흠뻑 적을 만큼 마을아이들과 '대문놀이' 삼매경에 푸욱 빠졌다. 요 '대문놀이'로 마을잔치가 끝나갈 즈음 공연팀도 받지 못했던 앵클 무대 요청을 받았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는 사실 ㅎㅎㅎ



3일차 ( 숙소 ➡ AFTC에서의 졸업식 ➡ 일로일로 이동 ➡ 미아가오 성당 ➡ 숙소 )





▲ 인기 많았던 전설의 대문놀이



▲ 함께한 마을주민들



▲ 공연팀과 인기 만점의 형동 팀장

이날은 AFTC에서의 아쉬운 일정을 마무리하는 날이었다. AFTC 활동가들과 그동안 돌아보지 못한 센터와 공장 구석구석을 둘러보고 여행으로 인해 배출된 이산화탄소 상쇄를 위한 유실수를 센터 울타리를 따라 심었다. 그 옆에 '모두가 이곳 AFTC를 다시 방문해 함께 열어보자'는 소망을 담아 이번 우리의 공정여행을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한 타임캡슐을 묻는 것으로 마무리. 꼭 우리가 아닌 다음 기수가 이 타임캡슐을 열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다.

2박 3일의 AFTC에서의 경험을 나누고, 준비해주신 마지막 식사를 함께 한 후 우리가 준비해간 그곳 아이들을 위한 작은 선물을 전달하는 것으로 AFTC와 함께하는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었다. AFTC가 있는 안티케지역 사투리 '벨랑가(사랑해)'를 외치며 아쉬운 작별 인사를 대신 했다.

'벨랑가~'



▲ 유실수 심기 전 기념촬영



▲ 다시 와 우리가 직접 개봉을!



▲ 센터 둘러보기



▲ 서로 잊지 말고 기억해요^^

AFTC에서 나와 우리는 상당히 오랫동안 차를 타고 남부에 위치한 일로일로주로 이동했다. 일로 일로의 숙소로 가기 전 우리는 필리핀 4대 성당 중 하나로 3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미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미아가오 성당을 방문했다. 미아가오 성당은 18세기 스페인 식민시절에 지어진 바로크 양식의 건축물로 단단해 보이면서 화려지않고 소박한 모습 때문에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가치가 있다고 한다.

미아가오 성당 나들이를 끝내고 다시 일로일로주로 1시간 정도를 이동해 도착한 숙소에 짐을 풀 우리들은 간편이 인상 깊은 식당 '부트발랏'에서 맛있는 저녁식사를 했다. 식당은 미리 예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이 나오기까지 어찌나 오랜 시간이 걸리던지 성격 급한 한국 사람들은 열두 번도 더 지리를 박차고 나왔겠지만 하하호호 수다 삼매경에 빠져 이야기하다 보니 하나씩 식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 사람마다 경험소감이 하늘과 땅차이였던 필리핀식 마사지로 하루를 마무리했다. 참고로 우리 방은 맛사지사에게 팁을 듬뿍 줄 만큼 대만족스러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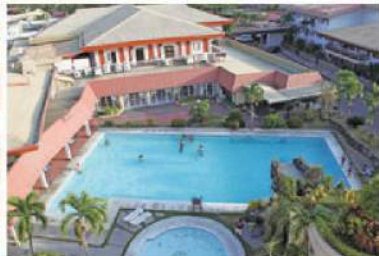
▲ 미아가오 성당 앞에서



▲ 긴 기다림을 달래며



▲ 먹는 것은 찰나^^



▲ 어? 풀장도 있는 숙소였나봐요

4일차 ( 일로일로 박물관 ➡ 일로일로 항구 ➡ 기마라스 섬 ➡ 스노클링 )



니름 풍성한 아침 식사를 마친 우리들은 서둘러 짐을 꾸리고 일로일로 박물관을 둘러본 후 필리핀의 숨은 보라카이 '기마라스 섬'을 향해 이동했다. 기마라스 섬까지 배를 타고 가는 30분 동안 '여기 어디쯤이 그 말로만 듣던 보라카이일지도 몰라!'라고 상상했었다.

하지만 우리들의 즐거운 상상이 무색하게 필리핀에 도착한 첫날 칼리보 국제공항에서 차를 타는 순간부터 우리들은 보라카이와는 정반대로 이동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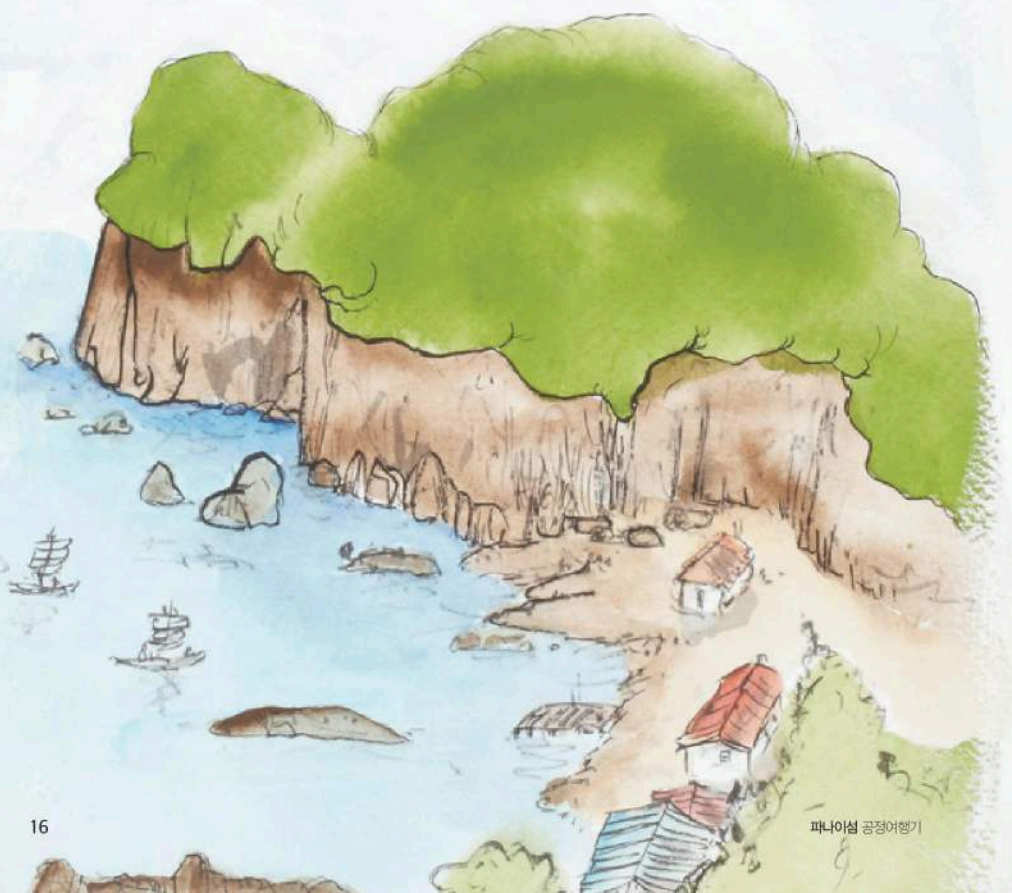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보라카이와 같은 유명한 휴양지가 아닌 것에 더 감사했다. 여기가 '필리핀이야?', '한국이야?' 할 정도로 많은 한국인들이 있는 휴양지였다면 이런 감동이 있었을까. 이런 세심한 것까지 배려해 여행을 준비한 공감만세와 상조회가 고마웠다.

기마라스 섬은 항구 정반대편에 있는 숙소까지 이동하는데 40여 분이 소요될 만큼 크고, 망고나 무가 참 많은 곳이었다. 서둘러 숙소에서 짐을 풀고 해산물 가득한 점식식사를 한 우리는 작은 배를 타고 인적이 없는 섬으로 스노쿨링을 하기 위해 이동했다. 이동하는 배안에서 3080 노래로 한껏 분위기를 낸 아줌마 부대를 보며 동행한 PFTC 마리오씨와 렌넨의 두 눈이 놀란 토끼눈이 됐다. 비록 TV화면으로 보았던 알록달록 예쁜 열대어들을 봤다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 이상의 것들을 본 것처럼 모두가 즐거웠다.



기억나는 에피소드를 정리하자면 비키니를 두벌이나 준비하고도 짐 가방에 담아오지 못했던 것. 수상 자격증을 자랑하는 전문가가 정작 몸은 제일 무거워 보였다는 것. 뛰어들 땐 좋았는데 생각보다 차가운 물에 놀랐던 것이다.

돌아오는 길에 잠깐 들린 거북이들이 산다는 작은 섬. 정작 거북이는 한 마리밖에 없고 그리 자유로워 보이지도 않고...(TV프로그램에서 나온 '당황하셨어요? 고객님!' 딱 그 짝이다. 거북이 니네가 고생이 참 많다.ㅠㅠ) 우리 중 누군가 이 섬을 다시 방문한다면 모르긴 몰라도 아마 거북이 가족을 꼭 데리고 오지 않을까? 가는 길에 잠깐 방문한 한국으로 치면 수산연구소와 같은 곳에서 만난 '라꾸라꾸'라는 이름의 커다란 물고기도 기억에 많이 남는다.







일로일로 박물관에서



어딘지 많이 닮았다 ㅋㅋㅋ



어디서나 설레게 하는 COOP



기마라스 섬을 향해



스노클링을 위해 이동 중



스노클링은 온데간데 없고 ^^



당황하셨어요? 고객님의!



거북섬에서 바라본 바다풍경

## 필리핀에서의 마지막 밤!

지나고 보니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버렸다. 풍성한 해산물로 준비된 저녁 만찬에 술 한 잔 기울이면서 모두들 마지막 밤의 아쉬운 마음을 달랬다. 돌아가며 이번 여행에 대한 감회를 들어보기도 하고 흥에 겨워 'AFTC forever~, PFTC forever~, 공감만세 forever~, 이이쿵생협·상조회 forever~'를 외쳤다. 가는 시간이 아쉬워 한국과 달리 가로로 누운 듯한 모습의 달빛을 벗 삼아, 모닥불 피워놓고 노래 부르던 학창시절 그 추억 속으로 시간여행을 떠나 보았다. (그 중 최고는 마리오씨가 뽕~ 반해버린 수건돌리기 ^^)



5일 ~ 6일차 (기마라스 섬 ➡ 일로일로 PFTC ➡ SM 일로일로 시티 ➡ 칼라보 국제공항 ➡ 인천공항)



아침 느긋한 해변 산책을 기대했었는데 다음 일정이 바쁘단다. 그래도 이곳에 왔다는 증거는 하나 남겨야지 하는 마음에 부랴부랴 서둘러 해변을 향했다. (그리고 보니 쉼을 위한 여행사진이 없어도 너무 없다.)



### ‘하나, 둘 셋! 찰칵!’

이쉬움을 뒤로한채 우리는 기마라스섬에서 다시 일로일로로 PFTC로 향했다. 파나이섬 공정무역의 발화점인 PFTC!

PFTC 입구에 걸린 환영 현수막과 벽에 큼직하게 새겨진 iCOOP이라는 글자가 우리를 먼저 반겼다. 로메오 PFTC 대표로부터 PFTC의 역사와 의미를 자세하게 들은 뒤 마리오씨의 안내로 마스크바도와 바나나칩 생산과정을 둘러보았다. AFTC에서 건조된 마스크바도가 큰 포대에 담겨 이곳으로 오면 렘(덩어리)을 가려내는 작업을 하는데 50kg 한 포대에서 약 30kg 양질의 마스크바도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이탈리아로 가는 마스크바도(소포장)에는 렘을 분쇄해 함께 넣고 있었고, 우리 iCOOP생협으로는 양질의 마스크바도만을 선별해 보내고 있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가려낸 렘 역시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폐기되는 것 없이 전량 소비되기를 바란다. 그 밖에도 PFTC에서 생산하고 있는 첨가물을 넣지 않은 공정무역 바나나칩 생산과정을 살펴보았다.

참, PFTC에서의 작업과정 중에 렘(덩어리)을 고온채로 거르는 작업이 있었다. 이탈리아에서는 이 렘을 분쇄할 수 있는 기계를 제작해 PFTC에 기증하였고, 다른 분쇄기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 분쇄기를 PFTC는 이탈리아로부터 전량 수입하고 있었다. 아이쿱생협도 렘의 다양한 활용도를 모색해 소중한 수확물이 폐기되는 일 없이 전량 쓰이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 시점에서 가만있을 꽃 누나들이 아니죠후 벌써 일이 다 성사된 것처럼 폭풍제안 내뱉고 왔으니 조만간 모두에게 좋은 소식 있기를... ^^)

## 마스코바도 생산과정

➡ AFTC에서의 과정

➡ PFTC에서의 과정



수확한 사탕수수



압축기를 통한 착즙



원액 끓이기 (3단계)



➡ 렘(덩어리)을 고르는 작업



마스코바도 건조과정



농축된 원액 이동



소포장 (이탈리아)



대포장 (아이쿱생협)



렘 분쇄기

마지막으로 필리핀 상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SM을 휘 둘러본 뒤, 저녁식사와 함께 마무리 시간을 가졌다. 마무리시간에 한명씩 공정여행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으로 '13명 꽃누나들의 공닥공닥 파 나이섬 공정여행'은 마무리 되었다.



PFTC 정문 환영 현수막 앞



PFTC 현관 앞



호세리잘 동상 앞



산호세 성당 앞 공원



# PFTC BUYERS AND PARTNERS

- CTM ALTROMERCATO
- SOLIDARE MONDE
- EZA
- ALTERNATIVA TRES
- UNA SALVIA (MACROBIOLOGICS)
- ICOP
- DITTEWELT PARTNERS
- ARTISANAT SEL
- TAMPEREEN KEHITYSMAAKAUPA
- GEPA
- GEPA MESERIOR
- TRADICRAFT
- FMIR
- WAKACHIAI
- OXFAM
- OXFAM PFTC 파트너 중 ICOP
- WEITLADEN-DACHVERBAND e.V.
- ITALY
- FRANCE
- AUSTRIA
- SPAIN
- ITALY
- KOREA
- GERMANY
- FRANCE
- FINLAND
- GERMANY
- GERMANY
- UNITED KINGDOM
- HONGKONG
- JAPAN
- GREAT BRITAIN
- HONGKONG
- GERMANY



로메오 사무국장과 함께



PFTC 활동가들과 만찬



공정여행 졸업식



◆ 여행은 배움과 철학이 있고 실천이 있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다. 아이쿱생협과 우리농업지킴이 상조회, 공감만세, AFTC, PFTC 덕분에 13명의 꽃누나들은 2014년 출발을 좋은 벗들과 그럴싸한 여행을 하는 것으로 새로운 활동의 힘을 얻었다.



이 글을 작성하는 도중 PFTC의 대표 로메오님이 무장괴한들로 인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철저한 조사로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지속 가능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공정무역, 공정여행이여 포에버

대구아이쿱소비자협동조합 이사장 권숙례

예전 직원과 조합원 교육 자료로 쓸 요량으로 이리저리 자료를 찾던 중 자세히 접하게 된 공정무역 마스코바도 생산지! 필리핀 파나이 섬의 안티케!

스페인어 '근육'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마스코바도', 우리 민족 일제 식민 역사에서도 자주 등장하던 남미나 하와이 섬 사탕수수 농장의 강제노역이 생각나 나의 호기심을 자극했죠, 그래서 다른 공정 무역생산지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봤던 것 같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설탕', 우리나라도 어려운 시절 흰 설탕은 부자들의 몫이었던 필리핀에서도 잘 정제된 설탕은 부자들의 것이었고, 거친 마스코바도는 가난한 이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도 긴 생명력을 가지고 존재하여 2014년 대한민국의 우리와 호흡하고 있으니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약간의 망설임은 있었지만, 저에게 마스코바도 생산지는 마음이 끌리는 곳이었습니다. 낯선 곳이라 생각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이유인 AFTC의 활동가들과 빨간 지붕의 설탕 공장 생산자 여러분들의 환대!

이들과 우리를 이어준 마스코바도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겠지요. 모두가 느꼈을 물질적으로 가난하지만, 마음과 삶이 참 부자인 그들이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보며,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여행이었습니다.



한국으로 와서 접한 PFTC 의장님의 슬픈 소식은 저의 마음 한 가닥을 그곳에 계속 돌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함께 살아가기를 가르쳐주는 공정무역, 세계민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게 하는 공정여행! 제가 속한 아이쿱생협이 이런 일들에 마음을 쏟고 있음에 감사하고 자부심을 느끼며 아이쿱생협의 일원임이 자랑스럽습니다.

무엇보다 PFTC, AFTC 활동가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힘을 북돋아 주는 일에 마음을 쏟아야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공정무역, 공정여행이여 포에버~~**

## 마을로 들어간 공정여행

구로아이콥소비자협동조합 김근희

함께 가는 사람들이 좋고, 우리의 마스코바도 공장을 보고 마을사람들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설렘으로 떠난 파나이 공정여행. AFTC와 PFTC의 환영과 웅숭한 대접, 그들의 활동이 주는 감동, 공감만세의 세심한 배려와 상세하고도 깊이 있는 설명, 너무나 잘 먹고 즐겁게 보낸 여행에 대해 할 말이 너무 많지만 먼저 올려주신 분들의 여행기를 보니 저의 맘을 그대로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소감은 저의 궁핍한 표현력으로는 더 보탬 것이 없고 '나도, 나도!'만 해도 충분하니 대신 좀 색다른 경험 이야기를 할까합니다.

첫날에는 우리를 위해 마중 나오신 PFTC 마리오님과 렌넨씨, AFTC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었어요. 저녁때는 우리를 위해 Tajan Family 삼남매가 기타반주로 작은 노래공연을 해주었지요.



둘째 날 오후에 마을구경으로 시장, 축산농가, 우리의 동사무소 격인 발랑가이 사무소를 거쳐 벨리슨 국립고등학교를 방문했는

데 우리를 안내하던 선생님께서 그녀의 남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한국 인천에서 6년간 근무한 후 2년 전에 필리핀에 돌아 왔고, 그날 저녁 우리를 위해 마련된 '벨리슨 국립고등학교 예능반 학생들의 공연으로 진행되는 마을 축제'에 그가 올 것이라는 이야기였어요.





마을구경의 마지막 일정으로 '마스코바도 가네 생산 유물 박물관'이라 해도 될 만한 다니엘로 까리아노 생산자회장님 댁을 구경하고 돌아오는 길에 저녁 축제 시간에 맞춰 걸어가고 있는 Tajan 삼남매를 만나 우리의 승합차를 함께 타고 왔어요. AFTC에 도착한 우리는 어둑어둑해져 사진이 잘 안 나올지 모르지만 서로를 기념하기 위해 사진을 찍었고, Tajan 삼남매 중 첫째인 Mario Fe Roquero Tajan이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담은 CD를 주며 이름을 물어보기에 명함을 찼지요.

저녁식사를 마치고 드디어 공연시간, 축제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 마을사람들과 함께 서 있었는데, 마을 사람 한 분이 저에게 "Are you happy?"하고 묻더군요. 저는 쪽지에 적어 놓은 것을 펼쳐 보며 '마사야(필리핀 표준어라고 하는 따갈로그어로 '즐겁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알아요?"하고 한국말을 하더군요. 저는 곧바로 그가 낮에 만난 선생님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어요. 저는 아주 짧은 영어를 그는 서툰 한국어와 영어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정확하진 않더라도 서로의 말을 이해하는 데는 충분했지요.

그의 이름은 세이몬. 미리 준비해 온 '한국에서 근무하던 직장의 김OO부장님과 심OO부장님의 전화번호'가 적힌 쪽지를 건네더군요.

'한국에 가면 이 분들께 너무 보고 싶고 고맙다고 전화를 걸어 달라.'

'한국 사람들 중에 외국인들에게 나쁘게 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미안한 마음이 있다.'

'괜찮다. 그 분들은 너무 좋은 분들이었다. 너무 보고 싶다.'

'가족들과 한국에 꼭 가고 싶다. 아직은 여비가 마련되지 않아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꼭 가고 싶다.'

'지금 전화를 걸어주겠다.'

'지금은 너무 비싸서 안 된다. 한국 가서 전화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졌어요.



한국에 온 저는 김반장님과 심부장님께 각각 전화를 걸어 세이몬의 이야기를 전하니 '이런 전화는 처음 받아본다'고 고마워 하셨습니다. 그분들께 '한국 사람들 중에 외국인들에게 나쁘게 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이렇게 좋은 인상을 남겨 주신 분들이 계셔서 고맙다'고 하니 '같은 직원이니깐 그냥 똑같이 대했을 뿐이다'고 겸손해 하시더군요. 너무 뿌듯한 순간이었어요.

그 사이 Mario Fe Roquero Tajan과 페이스북 친구를 맺은 터라 세이몬의 옛 직장 상사들과의 통화 내용을 전하고, 김반장님의 바뀐 전화번호를 세이몬에게 전할 수 있었어요. 짧은 영어실력으로 사전을 찾고 남편에게 물어보며 쪽지를 쓰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말이에요.

제게 외국 여행에서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소식을 전하고 다시 전해주고 하는 경험은 유적지, 관광지, 유원지에 가는 일반 여행으로는 할 수 없는 것으로, 마을로 들어가는 공정 여행에서만 얻을 수 있는 특별하고도 따뜻한 경험이었어요.

## 공정여행을 생각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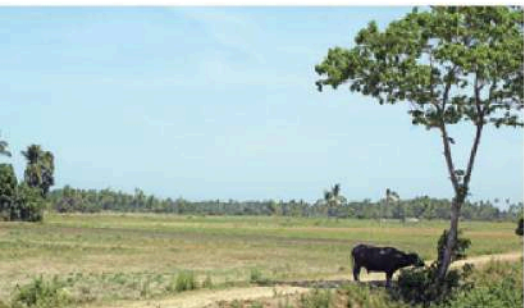
안산 아이쿱생협 이사장 김길순

찌든 도시의 일상에서 너무도 탈출하고 싶은 시간을 보내며 과감히 공정여행 신청서를 냈다. 그동안의 여행과는 뭔가 다를 것이라는 약간의 기대와 설렘이 존재했다.

매장 이전이라는 고민 속에 허덕이며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질 않아 터져버릴 것 같은 머리를 잠시 식히면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했다.

많이 더울 것이고 모기는 우리 몸을 부기에 시달리게 할 것이고 기후변화의 핵심에 있을 것이라는 고두환 대표의 교육을 듣고 견디지 못할 것은 없다 하며 단단히 마음을 먹고, 평상시에 애용하지 않은 선크림과 모자, 선글라스까지 챙겼다.

그렇지만 예상이 빗나간 건지 내 운이 필리핀까지 작용한 건지 날씨는 쾌청했고 더위 또한 애어컨 없이도 잘 지낼 만큼 내겐 힘든 일이 아니었다. 뜨겁긴 했으나 불쾌하지 않은 신선한 바람이 있었고 찌든 아스팔트와 시멘트 건물대신 바나나나무와 코코넛인지 모를 열대의 수많은 나무들이 큰 키를 자랑하며 있어 더위는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고 해야 맞을 것이다.



우리 어릴 적 시골풍경이라고 해야 할까? 너무나 정겨운 시골 풍경, 거리, 상점들까지... 적어도 필리핀의 실정과 안티케 마을의 실정을 듣기 전까지는 그저 정겨움만 가득했고 먹거리 또한 전혀 거부감 없이 잘 먹고 맘을 나누고 왔다.

필리핀 실정을 듣고 생각나는 것은 중간부 분이 비어있는 장삼각형이 연상되었고 어느 영화인지 기억은 없지만 공중에 떠 있는 상류계급이 누리는 엄청난 에너지와 부에 상관없이 땅에 사는 하류계급들이 살아가는 춥고 배고픔, 오염에 시달리는 그 영화의 장면이 연상되었다.



그 영화가 현실에서의 필리핀 모습과 교차되는 부분은 나의 과장된 생각으로만 끝났으면 싶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정무역, 공정여행이 한줄기 희망으로 큰 빛을 발해야 한다.

공정무역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을 들곤 했다. 그러나 이번 공정여행으로 모든 것을 결정했다. 공  
정무역은 땅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바탕이 되고, 공정여행은 이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다  
는 가능성이기에 적극 지원하고 홍보하고 권장되어야 한다는 확신을 얻고 돌아왔다.



공정여행에서 얻은 것은 사람이요,  
버린 것은 기계에 대한 생각이다.  
편리함 속에 사람은 사라지고 기계만이 남는다는 것.  
공정한 분배는 분명 가능하다는 것을…….

그들의 미소,  
그들의 마음,  
그들의 온기가  
아직도 내 추억이라는 기억 속에 깊숙이 박혀있다.

## 살라맛포 (필리핀 파갈로그어) “고맙습니다.”

부천 아이쿱생협 이사장 소미영

4박 6일간의 공정여행은 마치 꿈을 꾸듯합니다.

가기 전부터 대전 청년사회적기업인 공감만세에 들러 사전 공정여행 오리엔테이션, 다문화식당에서 동남아음식맛보기, 박석신 화가에게서 이름에 담긴 시연을 풀어내며 ‘내 이름이 꽃이다’ 프로젝트를 체험하면서 감동을 듬뿍 안고 섬과 활동, 재충전으로의 여행길을 떠날 준비를 하였습니다.

여행 첫날, 아침 일찍 인천공항에서의 출발은 비행기에서 반사되는 햇살을 받아 더욱 선명한 구름위를 걷는 기분이었고, 구름에서 지상까지의 높이를 재기 위해 끝까지 눈을 떼지 못했지요. 그렇게 4시간이 걸려 도착한 칼리보 국제공항은 옛 시절의 우리나라 전경을 보듯 소박하고 아담한 곳이었습니다.



### 제일 궁금한 것은 마스코바도 설탕이 나오는 곳!

7,109명의 우리 아이쿱생협 조합원, 생산자, 임직원들이 2010년 10월에 총 1억 8천만 원을 모아 공장을 세운 그 곳, 'AFTC(안티케 공정무역센터) 빨간 지붕'.

그곳의 생산자님들이 이번 여행에 참가한 우리들을 위해 마련한 큰 대나무 그늘막과 음식(특히 사탕수수 는 무척 달아 한없이 사탕수수를 입에 물고서 먹었던 터라 입이 부르터 열흘동안 고생했다 지요~), 마을축제의 시간에 경험했던 춤과 노래 아이들과의 교감("동동 동대문을 열어라..."), 체험 들(사탕수수 수확, 설탕가공과정, 물탱크 페인트칠), 유실수 심기, 타임캡슐(3년 뒤에 볼 우리들의 이야기들), PFTC의 바나나칩 생산과정 등 하나도 빠짐없이 너무 소중한 기억들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지속적인 교류로 달콤한 공생, 마스코바도 공정여행이 쪽~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모두모두 빨랑가! (AFTC가 있는 안티케 지역 사투리로 사랑해!라는 뜻).

\* 인간은 한 개인이면서 동시에 인류이다.

한 인간 속에는 전체 인간의 마음이 함께 흐른다.





## 공정여행! 필리핀을 탐하다

아이쿰 빛고를 서구생협 이사장 신선미

개인적으로 여행을 즐겨하는 편은 아니다.

해외에는 연수로 다녀왔던 일본을 제외하고는 처음으로 떠나는 여행이었다. 공감만세를 알고부터 딸과의 여행을 계획해왔지만 실행을 해보지는 못했다.

아이쿰생협 우리농업자킴이 상조회에서 활동가들을 위해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그 마일리지 상품으로 공감만세와 함께 필리핀 파나이 마스코바도 설탕 산지 공정여행을 준비를 시작하면서 생협 활동 12년차에 드디어 연수가 아닌 여행, 같이 오래 함께한 활동가들과 나의 첫 해외여행의 기회가 온 것이다. 그것도 한번 함께해보고 싶었던 공감만세와 함께.

생각이 행동으로 바뀌는 순간의 설렘을 안고 필리핀에 도착하면서 받았던 다름의 느낌은 여행하는 동안 에너지의 원천이 되었다. 필리핀에서의 시간은 내 기억속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게 해주는 마법의 시간이었다. 아이들, 마을풍경, 시장풍경,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내가 필리핀이라는 다른 나라에 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하는, 내가 살아온 모습이었다.





AFTC 마스코바도 설탕공장을 방문하면서도 이곳이 필리핀이라는 것을 조금도 느낄 수가 없었다. 우리가 먹고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우리의 산지를 찾아온 기분이었다. 아니 구례 자연드림 파크를 방문하는 기분이었다고 하면 더 정확한 표현일까?

나에게 파나이 마스코바도 설탕공장은 조합원들이 벽돌 한 장 한 장을 모아 공장을 만들어 우리가 필요한 상품을 생산하는, 우리가 일구어낸 편안하고 가슴 벅찬 필리핀 자연드림 파크였다.

여행하면서 만난 아이들, 학생들, 주민들, 그리고 AFTC에서 만났던 직원들과 생산자들의 수줍으면서도 열정적인 모습, 그리고 내가 있던 그곳에 함께 있었던 여행자들~  
 항상 함께하는 옥순과 명숙, 여행하는 동안 우리를 웃게 했던 재경, 희 자매 근희님, 금희님, 사진 찍는 모습이 새로웠던 선희님, 처음으로 오래 함께했던 길순, 회장님 회장님 우리회장님 현화님, 막내여요 숙례님, 우리는 미 자매 은미님, 작가(?)수진님, 우리의 명가수 미영님, 그리고 하경주 국장님, 우리를 카메라에 담느라 애쓰는 영미(미 자매네요, 우라~), 공감~ 고두환 대표, 이형동님~ 만세

지금도 사진을 보며 그 순간을 생각하고 웃음을 날린다.

## 역사를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삶을 만나는 여행

아이쿱 한울남도 생협 이사장 이명숙

오랜 이사장 활동을 내려놓은 후 2014년 3월!

나에게 새로운 포지션으로서 활동이 이어지겠지만 그전에 나에게 '쉼'을 선물하기 위해 시간을 비워두고 있었다. 베트남과 캄보디아, 몽골, 산티아고 등 이곳저곳 가고 싶었던 곳을 소리 없이 탐색하고 있을 무렵 아이쿱생협의 마스코바도 생산지이자 벽돌 한 장의 이야기가 있는 AFTC와 PFTC를 중심으로 필리핀 공정여행을 제안 받았다.

궁금했다. 아이쿱에서 만드는 공정여행은 어떻게? 나름 공정여행회사들이 주관하는 여행을 다녀봤고 개인적으로도 여행에 대한 조금의 관심을 가지고 있던 터라 우리 아이쿱이 준비하는 공정여행이라면 어떻게 진행될까에 대한 관심이 가고 싶었던 여행지를 뒤로 하고 선택하게 된 동기였다.

필리핀 공항에 내려 안티케까지 작은 버스로 이동하는 동안 눈에 들어왔던 풍경들은 그저 타국에서 보이는 다소 이국적 풍경들이었고 스쳐지나가는 하나의 영상처럼 큰 감흥 없이 지나쳐갔다.

4시간 넘게 달려 구불구불 비포장도로를 지나 눈에 들어오는 빨간 지붕과 이네 익숙한 풍경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아~ 여기에 있었구나!'

그저 사진으로 또는 영상으로 수없이 스쳐지나갔던 빨간 지붕의 마스코바도 공장 AFTC를 만나면서 나의 필리핀 공정여행은 시작되었다. 필리핀의 하늘, 바람, 흙냄새, 따가운 햇살, 그리고 눈망울, 미소, 싱싱하고 맛있는 음식들, 바나나 잎에 쌓여 코코넛 밀크에 찌냈다는 찹밥, 담백한 생선요리, 잊지 못할 망고와 바나나 등 여행에서 만날 수 있는 키워드들은 양념처럼 여행을 풍부하게 채워갔다. 역시 잘 왔다. ^^





타자화 되는 여행이 아니라 역사를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삶을 만나는 여행.

필리핀에서의 1박, 2박, 하루하루가 쌓여가면서 만나는 사람들과 음식들, 파도와 필리핀의 젊음, 밤하늘의 쏟아질듯 반짝이는 수많은 별들마저 아름답게 미소 짓게 하면서도 온몸으로 느껴지는 필리핀은 나에게 묘한 목직함을 선물하였다.



### 낮선 이들과의 이유 있는 만남으로~

필리핀에서 생각났던 한 사람~ 필리핀 독립 운동가 호세 리잘의 이름을 고두환씨에게 들으면서 그때서야 고정희의 시 한 구절을 통해 알게 되었던 호세 리잘을 떠올렸던 나는, 일상으로 돌아온 지금 그녀의 시 한수를 통해 나의 필리핀 공정여행에 대한 잔상을 대신 해본다.

#### 밥과 자본주의 '호세 리잘이 다시 쓰는 시'

고정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사랑하는 필리핀  
피문은 동아시아의 진주여  
처절하게 짓밟힌 동방의 옥토여  
(중략)

동방의 빛으로 다시 일어나야 한다.  
우리는 빛이다, 노래하리라  
우리는 살아있다, 정소리 울려라  
(중략)

꿈에도 그리는 평화의 시대를 우리 힘으로 열어젖히라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

## 공정무역, 공정여행의 의미를 더 깊이 알게 된 여행

아이쿱 대우생협 이선희

나에게 필리핀이라는 곳은 여행지로서는 별로 매력이 있는 곳은 아니었다. 아이쿱생협에서 이번 필리핀 파나이섬 마스코바도 산지 공정여행으로 진행하고 여행에 함께 참가하는 사람들이 오래된 친구 같은 아이쿱 활동가들이라보니 선뜻 마음을 낼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

그리고 마스코바도 설탕공장이 조금은 궁금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다. 첫날, 마스코바도 설탕 공장이 보일 때 가슴이 벅차고 들뜬 마음이었다. 그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을지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기대도 되었다. 한국에서 온 활동가들과 필리핀 마스코바도 생산자들, 서로를 소개하는 시간동안 마치이웃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편안하고 즐거웠다.



파나이섬 공정여행기

외국여행을 가면 풍경으로 접하기만 했던 현지사람들의 집들, 과연 외국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집안을 꾸미고 사는지 늘 궁금했는데 이번 여행에서 현지의 마을도 돌아보고 그 곳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도 볼 수 있어 나에겐 또 다른 즐거움을 주었다. 숙소에서 AFTC 설탕공장을 오갔던 길이 고향길인 양 아직도 아련하다.

사전오리엔테이션부터 4박6일내내 공감만제가 여러 가지 세심하게 챙겨준 부분에 대해 감사드리고 필리핀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해줘서 또 감사드린다. 순박한 필리핀 사람들이 개개인의 노력에 의해 잘살기는 힘들다는 게 가슴 아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PFTC나 AFTC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보내고 안타깝게 가신 로메오 의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공정무역, 공정여행의 의미를 더 깊이 알게 된 계기가 되었던 이번 여행을, 함께한 모든 분들과의 즐거웠던 추억을 오랫동안 간직하겠습니다.





## 여행이란 이런 거구나?

아이쿱 대구 참누리 생협 이사장 이은미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도 욕구도 없었던 것 같다.  
공정여행 참가대상이 되었을 때 왠지 고민이 되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심정으로 시작된 이번 여행.

가족을 두고 4박6일의 일정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데는 약간의 용기와 가족의 배려가 필요했다.

3월5일 새벽2시 공항리무진을 타고 6시쯤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동행할 공정여행 동기들을 만났을 때 반가움, 그 순간 해외여행의 두려움은 확~ 날려 보냈다.

약속시간이 되니 한사람씩 모여들었고 수속을 마친 후 칼리보행 비행기에 탑승했다. 일본연수 이후 처음으로 비행기를 4시간 탄다는 것에 긴장감이 돌았다. 출발~ 하늘에서 바라본 인천바다는 아름다웠다. 새벽같이 출발해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난 허기진 배를 채울 기대식을 기다렸다. 학~ 한 손가락을 뚝 수가 없었던 것... 나의 촌스러움에 내가 놀랐다. 순간 '아~ 이번 여행에서 밥은 먹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비행기에서 지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즈음 아자수들이 보이고 에메랄드빛 바다가 보이면서 필리핀에 다다랐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칼리보 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받고 나오니 형동씨와 PFTC의 린렌씨가 우리를 맞아주었다. 우리 차량4대에 나눠 타고선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샐러드와 망고주스가 입맛에 맞았다. 인상 깊었던 건 화장실 문화였다. 변기 커버가 없는 변기는 처음이라 어색했다.

그리고 이동. 다큐멘터리에서 봤던 빨간 지붕이 보이는 순간 코끝에 전해지는 감동! AFTC 마스코 바도 공장 땅에 발을 디뎠다. 다녀온 지 20일 지난 지금도 그 때 그 기분을 잊을 수가 없다. '조합원들의 마음의 벽돌 한 장 한 장의 힘이 빨간 지붕 공장을 만들었구나! 협동한 힘의 성과물을 이 현장에서 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니 정말 뿌듯했다.

공장 식구들의 환대를 받으며 도착했다. 공장식구들이 준비해주신 음식도 맛보고 저녁에는 마을 사람들과 교류의 시간도 가졌다. 많은 것을 준비하신 것 같았다. 여기에서 우리와 다른 또 한 가지 문화를 알게 되었다. 우리의 경우, 손님과 함께 겸상을 하는 문화인데 필리핀은 아니란다. 손님이 식사를 하시고 나면 드신다는 것.



둘째 날, 안티케 마을 곳곳(시장, 학교, 의장님 덕 등)을 둘러보기도 하고 그날 저녁에는 고등학생들이 준비한 전통춤과 노래, 안티케 지방의 문화를 접하고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다.

3일째 되는 날 AFTC 마스코바도 공장에서는 메시지를 적어 타임캡슐에 담아 공장 한 곳에 묻고 묘목도 심었다. 우리

가 여행하면서 발생시킨 탄소를 줄이기 위한 운동이라고 받아들였다. 그렇게 여행의 반을 보냈다. 그때까지 핸드폰이 잘 안돼서 한국에서 나를 걱정하고 기다릴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4일차에는 바다에 갔다. 여름바다다. 가는 길목에서 필리핀과자도 맛보고 건조된 망고도 구입하고 도로변에서 판매하는 망고도 볼 수 있었다. 저녁을 먹고 바닷가에서 노래도 부르곤 손수건 돌리기를 했던 게 생각난다. 한국이나 필리핀이나 장소 불문하고 하고 싶은 건 하는 우리?!



4일째쯤 되니 필리핀이 익숙해져갔다. 음식도 도로도 그곳 사람들도, 저녁에는 마사지를 받았다. 한국에서 허리 치료를 받던 난 동남아의 마사지를 기대했으나 기대엔 못 미쳤다.

5일차, 어느새 필리핀에서의 마지막 날.

PFTC에 들러 의장님과 인사도 나누고 마스코바도 외 물품들 소개와 필리핀에서의 공정무역에 대한 의미들을 들을 수 있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규모면에서 작았지만 AFTC나 PFTC 무역 센터는 필리핀에서는 대단한 일들을 해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 PFTC 공장을 둘러보았다. 프랑스로 갈 마스코바도 포장을 하고 있었고, 바나나 칩 작업을 하고 있었다. 여기서 또 하나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가끔 먹게 되는 바나나 칩은 그냥 건조한 게 아니고 튀긴 거라는 사실을.



그곳에서 미리 주문해둔 선물용 바나나 칩을 받고 공장식구들이 우리들을 위해 준비해준 선물을 의장님으로부터 전달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4월 4일 의장님을 구례 그랜드 오픈식에서 만날 수 있겠다는 우리들의 바람은 꿈이 되어버렸다. 참으로 슬픈 일이다. 이런 일은 다신 없었으면 좋겠다.

PFTC를 나와서 우린 필리핀 중심가로 향했다. SM 일로일로시티로 가서 쇼핑을 했다. 난 봄에 사용할 스카프를 하나 구입하고 식품관에 가서 망고와 파파야, 파인애플을 샀다. 한국에 가면 열대 과일이 생각날 것 같아서다.

저녁을 먹고 칼리보 공항으로 이동했다. 칼리보 공항은 한국인들로 북적였다. 부산행 비행기가 떠나면 조용해지려나 했는데 변함이 없었다. 앉을 자리도 없어서 군데군데 공항바닥에 모여 대기하는 수준이었다. 탑승안내방송이 있고 우린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잠이 오면 지겹지 않을 터, 괴로움의 4시간이 지나고 도착. 새삼 인천공항의 세련됨에 놀랐다.

지금은 한국생활에 젖어 있지만 필리핀 사람들의 생활상은 잊을 수가 없고 그럼에도 행복해하는 그들의 삶에 존경을 보낸다. 난 채소에 굶주려 있었던 내 몸에 채소를 채우고 있다.

아~ 내 삶에 추억 하나를 남기고 왔다. 필리핀 여행. 좋은 사람들과의 여행이어 좋았고 공정여행이어서 더욱 좋았다. 다음 여행은 가족과 공정여행으로~



## 안티케 마을의 키다리 아줌마

김해 아이쿱 조합원 추재경

김해에 사는 내가 인천국제공항까지 가는 길은 한국에서 필리핀 칼리보 공항까지 가는 것 보다 더 멀었다.

밤 12시 10분 김해터미널에서 서울 강남터미널까지 운행하는 심야버스를 탔다. 쉽게 잠이 오지 않아 이리 저리 뒤척이며 도착한 새벽녘 강남터미널. 찬바람을 가슴으로 받으며, 덜덜덜 시끄러운 바퀴달린 가방을 끌고, 터미널 근처 공항리무진 정류장을 찾아 부지런히 이동했다. 홀로 이동의 마지막 코스, 인천공항행 리무진을 탔다.

가방 점검, 휴대폰 확인 응? 내 휴대폰?! 아무리 뒤져도 보이지 않는다. 버스를 세우고 반대편 길로 뛰어 택시를 타고 다시 강남터미널. 장거리 야간운전을 하신 기사 아저씨는 벌써 잠자리에 들었던다.

다짜고짜 마주치는 모든 사람에게 사정 이야기를 하고 겨우 내가 탔던 버스를 찾았다. 앉았던 의자 모서리에 아슬아슬하게 걸려있는 휴대폰. 진짜 반갑다. 빛의 속도로 이동! 공항버스가 보인다.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달렸다. 아, 간신히 탑승. 배시사~ 웃음이 났다.

오리오리한 규모의 인천 공항에 하나 둘, 친근한 얼굴의 활동가들이 모여들었다. 뭐~ 나름 공정한 삶을 살아온 우리들이긴 하지만, 색다른 공정 여행에 대한 기대와 여름웃이 가득한 가방으로 사뭇 설렘 ^^

KTX 좌석보다 더 비좁은 비행기를 타고 재잘재잘.. 찼 찼.. 비행기 아래로 푸른 자연이 넘실댄다. 흑~ 더운 공기를 맞으며, 시골동네 버스터미널 같은 규모의 칼리보 공항으로 들어섰다.





렌트카를 이용해서 3~4시간을 달렸다.

대나무를 엮어서 만든 나무집들이 드문드문 보이는 신호등 하나 없는 길을 달리고 달려 드디어

생협 뉴스와 다큐3일을 통해 보고 또 보았던 빨간 지붕의 달콤한 설탕 공장(AFTC)이 눈에 들어왔다.

와~! 설탕 공장을 보는 순간 반가움과 함께 왠지 모를 슬픔이 내려온다.

가난, 결코 2음절의 이 단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것을 담고 있는 필리핀의 작은 마을.

평범의 절정에서 나를 걱정적인 삶을 살아왔던 내가 안티케 마을에 머무르는 동안은 특별히 반갑고, 특별히 감사한 손님으로 특별한 대접을 받았다. 순수한 눈빛을 지닌 따뜻한 사람들이 준비해 준 정성어린 음식, 우리 네 시골마을 같은 소소한 마을 안내, 동네잔치가 된 가슴 벅찬 교류회. 갑자기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뜬금없는 각오를 하게 된다.

어릴 적 읽었던 책 '키다리 아저씨'처럼 안티케 마을의 순수한 사람들의 눈에는 아이쿱의 활동가(조합원)들이 키다리 아줌마들로 보였겠다는 생각을 했다.

달콤한 공생을 위해 모금 운동을 벌이고, 설탕 공장을 짓고, 지속적인 소비 활동을 넘어 직접 그 현장을 방문하여 마침내 손 맞잡는 아줌마.

이후 더 멋진 곳으로 이동하여 더 좋은 자리로 바꾸고, 더 화려한 요리를 준비해주었지만, 풍족하지 않지만 부족하지도 않아 보이는 안티케 마을이 더 떠오르는 것은 내 마음 한 덩이를 안티케에 묻어두고 와서 인가 보다.



## 빨간 지붕의 공장이 시야에 들어오자, 울컥~

아이쿱 부천시민생협 한금희

공정여행! 감동적인 첫 경험의 여운이 지금도 나를 감싸고 있어요.

3월5일부터 10일까지, 필리핀 파나이섬의 'AFTO(안티케 페어 트레이드 센터)'를 방문했어요.

조합원의 활동을 격려하고 성장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활동마일리지 제도의 열매, 공정여행! 아이쿱생협에서 오랫동안 열심히 활동을 해온 활동가 13명이 함께한 공정여행. 첫 공정여행상품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숙제가 포함되어 있지요!

아이쿱조합원들이 공정무역의 의미를 살리고자 벽돌 한 장씩의 기금을 모아 필리핀 파나이섬에 지은 마스코바도 설탕공장의 빨간 지붕이 보이기 시작하자 울컥~ 가슴이 울렁였어요. 벽돌 한 장의 기적을 보았어요. 나는 작은 힘을 보탤 뿐인데 말이죠.

아이쿱생협은 여행을 준비하기 수개월 전부터 여행을 어떻게 꾸려야 지역을 살리는데 기여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파나이 지역활동가들과 학습하고 토론해왔습니다. 여행자의 행복을 담아야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파나이 주민활동가 양성에 들인 비용과 교육 과정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 공정여행에 이런 준비가 필요하구나. 새삼 눈앞에 보이는 것의 뒷면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조합원들이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해서 조직하고 발전시켜온 아이쿱생협의 관심은 다양한 분야로 확산에 확산을 거듭해왔어요. 다른 나라에서 수입할 수밖에 없는 먹을거리라면 공정무역으로 들여오자!





단순한 기부나 지원이 아니라 그 곳의 생산자와 지역주민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기여하자!  
공정무역의 산지 견학을 하려면 공정한 여행으로 풀어보자!

너무나 가난한 삶 속에서도 함께 행복하고자 애쓰는 AFTC 지역 리더들의 모습은 그 자체가 감동  
이었습니다. 마을주민과의 잔치마당! 동동동대문을 열어라! 남남남대문을 열어라! 12시가 지나면  
문을 닫는데 말이 달라도 우리는 금방 하나가 되어 놀이를 즐겼어요.

적도의 땅에서 땀이 범벅이 되어서 노래를 부르며 돌고 돌았어요. 경찰이 지켜주는 가운데 마을주  
민 500여 명이 참여한 잔치! 음식도 나누고 공연도 관람하고! 주민들도 우리들도 가슴 벅찬 경험  
이었어요.



여행이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더불어 여행에서 만나는 지역 사람들의 삶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기를 바라고 실천하는 긍정적인 여행이었습니다.

여행에 함께한 17명의  
사려 깊은 언행과  
끝없는 정열과  
거침없는 비판  
참을 수 없는 솔선

아이쿱 활동가와 직원, 공감만세~ 그대들을 사랑합니다.

## 공정무역 산지를 공정하게 여행하는 방법은?

아이쿱 생협 마스코바도 설탕 산지 공정여행 답사를 다니며

공감만세 대표이사 고두환

일백 삼십만명 즈음, 에메랄드 빛 바다를 동경하고 다채로운 시푸드와 오감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레포츠까지, 화려한 밤 문화와 체감할 수 있는 저렴한 물가 그리고 순박한 사람들의 웃음들. 그 많은 사람들은 여행을 하기 위해 매년 필리핀을 찾고 있다.

세계 3대 해변 중 하나라 불리는 '보라카이'를 보기 위해 오늘도 파나이 섬 칼리보 공항에는 수많은 한국인들이 모인다. 10월 말의 평일, 비수기 중에 비수기에도 승객을 가득실은 비행기는 아자수 가득한, 아주 자그마한 공항에 도착했다. 엑스선 검사기가 없는 공항, 승객들의 짐을 일일이 열어보며 차가운 표정과 손짓으로 한국 사람들을 맞는 필리핀 사람들. 문득 우리는 한국에 만나는 수많은 동남아시아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았는지, 지금 느낀 이 불편함이 단지 내가 기분이 나쁜 것인지, 내가 했던 행동이 반추되어 내게 돌아오는 것인지 헷갈리기 시작한다.





칼리보는 보라카이를 오가는 관문이다. 현관문 같은 공항 출입구를 나서면 대형 여행사의 이름을 내건 버스들이 도열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수많은 운전수들은 어설픈 한국어로 자신들의 팀을 찾고, 여행자를 태운 버스는 쓸쓸같이 인근의 항구로 달려가기 바빴다. 보라카이를 찾는 한국 사람이 파나이 섬에 발을 딛는 건 오직 보라카이를 가기 위한 관문으로서였다. 매일 같이 한국 사람을 맞는 파나이 섬은 정작 한국 사람과 연을 맺을 일이 별로 없단 생각이 들었다.

아는 선배가 일로일로에서 어학 연수를 한 적이 있었다. 한적한 동네에 순박한 사람들이 산다며, 영어 공부만큼 할게 없지만 정말 평화로운 동네라 이야기 한 적이 있다. 생각해보니, 일로일로노 북쪽 끝에 위치한 칼리보와 반대로 남쪽 끝에 위치하고 있었다. 차로 꼬박 달려야 4시간, 싱가포르 크기만한 파나이 섬에 끝에서 끝을 종단해야 만날 수 있는 도시였다. 보통 칼리보로 들어와 일로일로로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고, 마닐라 공항으로 들어와 국내선으로 갈아탄채 일로일로로 들어오기 일쑤였다. 하지만, 일로일로에 어학연수를 오는 학생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 이리저리 살펴봐도 파나이섬에 한국 사람이 올만한 일은 별로 없어 보였다.

'니노'라는 운전수와 처음 만나 인사를 했다. 24살의 청년, 두 아이의 아버지였고, 순박하게 생긴 얼굴과 다르게 열정(?)적으로 운전하는 친구. 필리핀 사람이 운영하는 렌트카 회사에서 정당한 대우(렌트카 지불비용의 20%를 임금으로 받는다. 600페소 정도 되는 돈은 필리핀 최저 임금의 2배를 상회한다)를 받고, 일로일로 주에 등록되어 있었다. 외국인이 운영하는 렌트카 회사 중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곳이 제법 많았고, 제대로 된 임금을 보장해주지도 않았다. 일자리가 워낙 귀하니 너도나도 일한다고 달려들어 일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구하는 필리핀 사회, 사고라도 난다면 그 누구에게도 수습은 커녕 보상조차 받지 못할게 뻔했다. '니노'의 렌트카 회사는 다양한 보험에 가입했고, 당연히 지방정부로부터 다양한 조사 및 신고의 의무를 부여받고 있었다. 같은 소비를 하더라도, 뜻 깊다 느끼고 무엇보다 구조 속에서 나의 안전을 보장받는다는 것은 입국할 때 들었던 심란한 생각을 일순간 사라지게 만들어주기 충분했다.

네 시간여의 이동, 드 넓은 평원에 푸른 버가 춤을 추고 내리쬰는 태양 빛 군데군데 아자수 나무가 보였다. 카리바오(물소)가 어슬렁거리고 걸을 때, 가벼운 몸매로 이리저리 쏘다니는 필리핀 사람들의 모습이 비쳤고, 무엇보다 참 평온한 동네가 바로 파나이섬이었다. 그 풍광이 사람마음까지 편안하게 해 주어서 이동하는 내내 풍경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350여년의 스페인 식민, 50여년의 미국 식민, 그리고 3년의 일본 식민까지. 다섯 세기 가까운 세월 동안 필리핀 민중은 자주, 자립, 자존의 가치를 잃고 버티며 살아왔다. 필리핀 최초의 증기기관 차가 놓인, 스페인 식민이 세운 극장과 백화점 그리고 이후 미국과 일본이 개조하고 증축하여 사용한 건물의 골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일로일로 시티에 첫 발을 내딛을 수 있었다.

2백만이 훌쩍넘는 인구가 사는 일로일로의 주의 주도이자 파나이섬 최대의 도시, 국내외로 통하는 공항과 항구가 위치한 일로일로는 필리핀 내의 거점 도시 중 하나였다. 성수기도 아니었기에 시내를 활보해도 한국 사람은커녕 외국 사람 한 명 만나지 못했다. 필리핀이었지만 제국주의 외세들이 남긴 이국적인 풍경과 그 때 세워진 나무 전신주가 아직까지 제 역할을 하려 곳곳에 서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인간사의 아이러니에 대해 고민했다.

시내 중심에 자리잡은 공원, 그 중심에 우뚝 서있는 필리핀 독립운동의 영웅 '호세리잘'을 보았고 1년 예산 20조 규모(1억명이 훌쩍넘는 인구의 필리핀, 인구 1천만의 서울과 비슷한 예산규모를 가지고 있다)의 나라에서 외국의 진 부채의 이자를 갚는데만 1/3의 예산을 쏟아붓는다는 르몽드의 필진 '월든벨로(필리핀국립대학 교수)의 발표를 보면서 그들의 독립운동은 여전히 진행 중이지 않을까란 망상이닌 망상에 빠지기도 했다. 관광객을 맞을 수 있는 몇몇 호텔 뒤에 있는 해안가의 빈 민촌, 강과 바다가 만나는 그 지점에는 배수시설이 제대로 없어 악취가 진동하고 위태롭기 그지 없는 집들이 가느다란 해안선을 따라 자리를 잡고 있었다.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필리핀 사람 2천만명, 본인이 가난하다고 느끼는 필리핀 사람 8천만명, 20대 가문이 전체 부의 90%를 독점하고 있는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마을 입구에서 다 해진 슬리퍼를 던지며 노는 아이들을 보노라면 자본과 인간의 관계 역시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차로 30분쯤을 달려가면 나오는 미아가오 성당,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 곳은 스페인 식민이 대규모로 건설한 대표적인 식민 유적중 한 곳이다. 일본 식민이 한국에 지어놓은 어떤 유산을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다고 하면, 과연 우리 사회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 왜색이라 평하며, 어떻게든 그 색을 지우고 식민으로 인해 지워졌던 우리의 정체성과 고유 문화를 복원하려는 노력이 각계 각층에서 이어지는 우리의 관점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미아가오 성당이었다.

성당이 내제하고 있는 내용은 다소 충격적이었다. 유네스코 필리핀 위원회의 설명에 따르면, 미아가요 성당 정면에서 볼 수 있는 파나이섬 원주민이 아자수 나무를 잡고 서있는 형상이라던가 파인애플이 곳곳에 장식으로 들어간 다양한 문양들은 기존의 원주민들을 거부감 없이 카톨릭 문화에 내제시키기 위한 노력 중 하나였다고 한다. 그들의 구전 문화 역시 성경과 적절히 섞이는 과정을 겪게 되고, 스페인은 십자가를 앞세워 필리핀 전역을 복속하기 시작한다. 복속되지 않는 이들은 십자가 뒤에 숨은 제국주의의 야욕이 총을 앞세워 제압하기 시작했다. 이 때 당한 피비린내 나는 억울함은 아직까지도 짙게, 필리핀의 문화예술계 전반에 남아 있기도 했다. 그런 공간을 유네스코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했던 것이다. 이 또한 인류가 교류한 역사이고, 상호 간에 그 무엇보다도 영향을 준 역사였다. 기억해야 하는 역사이고, 반복하면 안되는 역사였다. 좋은 나쁜 역사를 보존하고 현재에서 올바르게 해석하는 일은 어쩌면 필리핀이 우리보다 앞서 있을지 모르는 일이었다. 먼 타국에서 성당을 보기 위해 찾아온 한국인들을 맞이한 마리아 수녀께서 관리인에서 잘 안내해주라고 신신당부를 하며 약속을 위한 종종걸음을 옮기기도 했다.



## 보라카이와 관광과는 다른, 파나이의 실험들

파나이섬에 위치한 관청 곳곳에선 심심치 않게 지역기반관광(Community Based on Tourism)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태양열을 이용해 시청의 전기를 공급하는 일로 일로 시티 근처에 위치한 파나이섬 관광청에선 보라카이의 난개발이 아에타족의 커뮤니티를 어떻게 파괴하였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기존의 관광 개발 방식은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지역민이 운영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지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여행. 결국 지역민이 지속가능한 삶의 구조를 갖는 것만이 지속가능한 지역 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는 믿음하에 서서히 공정여행의 방법 중 하나인 지역기반관광을 정책으로 차용해 사용하고 있었다.

그들의 추천을 받아 방문한 기마라스 섬, 비사야스 제도에 숨은 보라카이라 불리며 에메랄드 빛 해변과 새하얀 모래사장으로 유명한 섬을 가는 첫 길은 그리 유쾌하지 않았다. 강과 바다가 만나 어종이 풍부하기로 유명한 기마라스 해협. 하지만 관개시설이 안 좋기로 유명한 파나이섬 끝단에 위치한 탓에 온갖 오수가 만나는 지점이기도 했다. 악취와 잿빛 바다는 양 섬을 오가는 배에 탄 불



과 15분의 시간동안 사람을 불쾌하게 만들기 충분했다. 항구 근처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노라니, 불쾌함을 넘어 아이들의 건강이 걱정되기 시작했다.

기마라스는 중앙에 높은 산이 있고, 섬 둘레를 잇는 해안선이 일품인 섬이었다. 조류 방향에 따라 남쪽의 바다가 아름다울 때가 있고 서쪽의 바다가 아름다울 때가 있었다. 다행히 항구를 벗어나 만나는 바다들은 그야말로 일품이었다. 오염되지 않은 나라는 짝 내가 나지 않는다고 했던가, 하늘과 바다가 청명한 빛깔을 이루며 지평선에 맞닿아 있었다. 숨은 보라카이. 충분히 그런 말을 들을 만한 섬이었다.

가운데 위치한 거대한 산을 중심으로 망고, 바나나, 구아바, 레몬 같은 작물들을 유기농으로 키우는 농장들이 몇 개 위치해 있고 여행자가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구비한 곳도 있었다. 이 곳이 바다에 위치한 섬인가 싶을 정도로 구릉 같은 형태의 산새가 이어지고 8헥타어를 이루는 농장들이 자리잡은 것이 인상적이었다.

내가 머물게 된 기마라스의 바다는 남쪽 끝이었다. 예전 리조트를 증축하여 사용하는 형태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전반적인 시설은 한국 사람이 머물러도 나쁘지 않을 정도의 수준이었다. 입구부터 해변까지 지난 가는 사람 몇 명을 붙잡고 물어봐도 돌아오는 대답은 '나의 고향은 기마라스입니다'였다. 현지인이 운영하는 그리고 현지인이 고용된 그런 리조트, 일반적인 옷을 입고 리조트 여기저기서 뛰어노는 아이들은 이 곳 사람들의 아이들이 틀림없었다. 슬리퍼를 살 일이 있어서 들어간 리조트 내 상점, 70페소 정도, 리조트 같은 곳에서 쉽게 형성되지 않는 합리적인 가격선이었다.



리조트에 소속된 배는 5척 정도, 그 중 1척을 담당하는 청년 2명과 인근 섬으로의 호핑투어를 시작했다. 속이 그대로 비치는 맑은 물은 아이들도 수영하기 좋은 수심이었고, 어른들이 역동적으로 수영하기 좋은 에메랄드 빛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런 수심들은 몇 개의 섬을 오고가면서 볼 수 있었고, 동굴과 암초, 바다거북과 다양한 모래사장을 통통배로 이동하며 보는 재미는 쏠쏠했다. 자그마한 물고기 떼를 볼 수 있는 스노우쿨링, 비록 이름난 해변처럼 화려한 모습을 보지 못하지만 한적한 바다에서 태양 빛이 바다 곳곳에 투영되는 장면만 눈 앞에 아른거리더라도 나에겐 이미 스노우쿨링의 역할을 모두 해냈다는 생각이 들었다. 통통배를 담당하는 청년 2명의 월급은 5천페소(약 15만원) 정도, 수도 메트로 마닐라의 도시 빈민들이 보통 2천페소(약 6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 것을 봤을 때 나쁘지 않은 수입으로 청년들은 살아가고 있었다.

저렴한 가격의 다양한 시푸드가 저력을 수 놓았다. 단순히 찌고, 구운 생선이나 새우 말고도 퓨전 형태의 간을 한 게 요리나 채소 위주의 요리를 맛볼 수 있었다. 간혹 들리는 리조트 사람들의 재잘거림, 파도소리와 쏟아지는 별들, 해변 바로 앞에 위치한 바야니한필리핀 전통 가옥을 일컫는 말)에서 밤은 그렇게 깊어 갔다. 밤에 나선 해변엔 작은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 다니며 모래사장 가까운 곳에 출현했고, 리조트에서 쏘는 라이트 볼 빛 아래 해변 안전망 안쪽에서 노니는 젊은 청년들이 보였다.

5성급의 화려한 해변리조트는 아니었지만, 조명과 전자음이 퍼지는 밤 문화가 자리잡지 못했지만, 그 어느 때 보다 편하고, 공정하려 노력하는 가마라스의 지역기반관광 시도는 낯선 곳에 당당한 여행자를 꼭 편안하게 해 주었다. 최신식 TV, 아담하지만 깔끔한 욕실, 새 모양으로 접힌 타월 뒤에 보이는 캐릭터가 가득 그려진 침대보, 어딘가 모르게 어색하지만 장식 가득한 방에서 그렇게 하루를 묵어가는 것엔 사람사는 냄새가 물씬 났다.

## 변혁은 공정무역으로부터:

### 파나이 공정무역 센터(PFTC: Panay Fair Trade Center)

이제는 한국에서도 꽤 알려진 설탕 마스코바도, 필리핀의 섬 파나이와 네그로스 등지에서 나는 마스코바도는 흙 색깔과 비슷한 빛깔을 띠며 깊고 풍부한 단맛과 유기농으로 재배한 사탕수수를 가지고 만드는 천연 설탕으로 생협을 중심으로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다. 한국에서의 소비량이 급증하면서 이제 파나이섬의 공정무역 실험은 어느덧 한국과 필리핀의 관계와 관점에 따라 영향을 받는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일로일로 시티에서 차로 30여분 달려가면 나오는 오톤(Oton) 군. 그곳에서 나는 변화와 혁신의 잔잔한 바람을 일으키는 유쾌한 조직 '파나이 공정무역 센터(PFTC)'를 만날 수 있었다. 이탈리아 최대 공정무역 단체 씨티엠(CTM), 독일의 공정무역 단체 게파(GEPA), 한국의 대표적인 생활협동조합 아이쿱(coop) 등이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는 파나이 공정무역 센터는 마스코바도 설탕, 바나나 칩, 생강차 등을 주로 공정무역 상품으로 생산하고 있었다.

공장 입구에서 처음 만난 이사장 로미오 씨, 이사 루스 씨, 사무처장 앙헬 씨, 사무차장 마리오 씨까지, 순박한 미소와 격의 없는 행동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 나름의 고초와 역경을 딛고 현재 공정무역 활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들이었다.



1986년, 필리핀은 수많은 피가 도로에 얼룩지며 아시아의 봄을 이끈다. 피플 파워(People Power)라 불리는 민중 혁명, 독재자 마르코스의 유신 집권을 반대하는 물결은 대표적인 민주화 인사 니노이 아키노 상원 의원의 파살과 함께 결집을 수 없이 커지고, 결국 마르코스의 하야와 직선제로 치러진 선거에서 그의 아내인 코라손 아키노 여사를 필리핀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등장시키는 일을 맡게 한다.

그 때, 필리핀의 민중들은 잠재된 욕구들을 표출하기 시작했다. 다섯 세기 가까운 식민 역사에서도, 미국의 신탁 통치 이후 수립된 정부에서도 이루지 못한 토지개혁과 경제민주화, 1960년대 한국에 장충체육관을 지어주고 통일버 기술을 전달해 줄 만큼 잘 살던 필리핀이었지만, 30년 가까운 세월동안 여전히 1천분의 GDP를 유지하고 있었다. 빈부의 격차는 갈수록 심해지고, 무상교육을 내세운 고등교육이었지만, 3교대로 돌아가는 공립학교에 80명짜리 교실엔 다뿔어진 교과서 1~2권으로 수업을 하고 있을 뿐 이었다.

굶어죽는 것을 막는게 소작이었지만, 아이들 학교 보낼 때 연필조차 사주지 못하는 것도 소작이었다. 땅을 가진 사람은 눈을 찡고 찾아볼 수 없었고 가난은 대물림되고, 돈이 없어 배우지 못하면 또다시 빈민으로 전락해야 했다. 슬프게도 민중의 희망처럼 등장했던 코라손 아키노 대통령 역시



대표적인 지주 집안인 코후앙개의 사람이었다. 토지개혁을 요구하던 농민들을 향해 그 집안 사람들은 발포를 하고, 수십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된다.

그 때 즈음, 토지 개혁 역시 오랫동안 준비하고, 서서히 쟁취해야 이룰 수 있는 사명이라 생각한 파나이 공정무역 센터 사람들. 생산자와 소비자의 거래가 아닌 관계를 고민하고, 공정한 대금을 치르는 것 이상의 공정한 경제 구조를 고민하는 공정무역이 현재 필리핀의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되지 않을까란 판단하에 그들은 공정무역에 힘을 쏟게 된다.

이탈리아 최대 공정무역 단체 씨티엠(CTM), 독일의 게파(GEPA), 그리고 한국의 아이쿱 생협 등 여러 나라의 수십 개 조직들이 그들과 관계를 맺고 공정무역을 시작했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그 일이 쉽지는 않았다. 그들이 취급하는 마스코바도 설탕, 바나나 칩, 생강차 등은 모두 땅에서 재배 되는 농산물이었고, 농민들과 가공 공장의 노동자들이 조직되어야 할 수 있는 일 이었다. 지역의 토호들 입장에서선 그들은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다.

파나이 공정무역 센터의 직원들은 많은 고초를 겪는다. 영문도 모른 채 내란죄에 기소되기도 하고, 연행되거나 감금되는 경우도 많았다. 그 때마다, 공정무역을 하는 여러나라의 단체들이 성명을 내고, 그들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리고 수백명의 소작농들이 이제는 파나이 공정무역 센터에서 일을 하고, 꿈을 꾸고, 희망을 논하고 있었다.



## 미래를 위해 터전을 일구는, 파나이 공정무역 센터

한 때, 필리핀은 아시아 최대의 쌀 수출국이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삼 대양을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게 되는 입지 조건 탓에 필리핀의 무역은 일찍이 발달했다. 필리핀의 음식이나 문화 등은 다 채롭다.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퓨전. 그 어느나라보다 교역이 활발하고 교류가 왕성했다는 것을 뜻한다.

필리핀이 동남아시아의 여느 나라보다도 쌀을 많이 수입하는 나라로 전락하게 된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토지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소작에서 더 이상 삶의 희망을 볼 수 없던 사람들이 시골에서 도시로, 도시에서 외국으로의 두 단계에 걸친 이주 노동을 실시했기 때문이다. 전체 인구의 10%(1천만명 이상)가 훌쩍 넘는 이들이 이주 노동을 하는 필리핀, 연간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서는 돈이 이주노동자들로부터 필리핀 내로 입금되지만 정작 국내에선 큰 수술을 할 의사가 턱 없이 부족하고, 제대로 된 소송건을 담당할 국제 변호사도 품귀현상이 벌어진다. 인력이 끊임없는 유출은 사회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못하게 하는 최대의 걸림돌이 되고야 말았다.

파나이 공정무역 센터는 당연히 공정무역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일단, 작은 땅에 생신량을 늘리기 위해 폭력적으로 사용했던 농약 사용을 없애고 유기농으로 사탕수수나 바나나를 재배하기 시작한다. 쉬운 일이 아니었다. 배우고, 실험하고, 다시 배우고, 다시 실험하고의 과정은 그리 쉬운 과정이 아니었으랴. 공정무역에는 필드의 지력 회복을 위한 전수금을 제공하기도 하고, 농번기를 잘 넘기라는 의미에 착한 대출(돈을 빌려주고, 수확기에 현물로 받는 방식)을 실시하기도 했다. 그들의 유기농 실험은 그들을 믿고 기다려준 여러 소비자들 덕분에 가능한 구조였다.

이탈리아 CTM의 도움으로 설립한 설탕과 바나나의 가공 및 포장 공장은 그 여느 곳보다 깨끗하고 안전하게 운영해야 했다. 유럽의 까다로운 식품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선 유기농도 해야 했고, 청결해야 했으며, 무엇보다 맛도 있어야 했다. 지금에는 쉽게 이야기하는 것들, 아무 것도 없는 척박한 사회 구조에서 이들은 묵묵히 일을 했고, 경제 규모에 비해 공정무역의 후발 주자로 불리는 한국 사회에도 이제 이들의 마스코바도 설탕이 공급되고 있다.

이왕 쓰는 돈을 윤리적으로 사용하면 여행자와 원주민 모두 설레는 여행을 할 수 있다는게 궁극적인 공정여행의 컨셉. 여행을 통해 얻는 영감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시민이 많아지면 세상의 변화와

혁신이 가능하고 여행을 통해 얻는 이익이 올바르게 공유되면 열악한 여행 지역에도 자립과 자존, 그리고 자주의 길이 열린다는게 우리의 방법이다.

공정여행과 한 뿌리를 가진 공정무역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처음에 다소 못 미덥고, 다소 비싸고, 무엇보다 한 번에 돈을 지불(예를 들자면, 1년치 설탕 사먹을 돈을 한 번에 선수금으로 지불하는 등의 행위)하는 등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지만,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몸에 안전한 유기농산물 먹을 수 있고 우리가 소비하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들의 삶에도 오늘이 아닌 내일이 생긴다는 점, 여행의 힐링은 우리의 행위가 부메랑처럼 희망으로 돌아온다는데 있지 않을까.



## 내 삶의 변화의 희망: 파나이 섬의 이상한 설탕 공장으로부터

일로일로 시티에서 차로 4시간여를 달려서 도착한 벨리손 군 군청에 알파벳 중 하나인 N자가 망가진채로 서 있었다. 주변을 벨리손 군이 속한 안티케 주에 채광 호재가 있어서 일까, 일본 자이카(JAICA)에서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통해 지은 중고등학교의 휘양찬란한 건물 말고는, 그야말로 가난한 동네가 벨리손 군이었다. 동행한 앙헬 씨는 안티케 주를 관할하고 있는 주청의 크기가 일로일로 주에 속한 일로일로 시의 시청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낡고 작다는 말을 덧붙였다.



끝이 보이질 않는 논과 밭, 포장된 도로는 보이지 않고 집은 띄엄띄엄 떨어져 있었다. 농기계라고 눈 씻고 찾아봐도 나오지 않는 한적한 사골 동네, 아침이 되면 소작농들이 피를 뽑고 논을 살피는 일로 시작하는 곳이 바로 벨리슨 군이었다.

저 멀리 논 한 가운데 덩그러니 서 있는 빨간 지붕의 공장, 그 옆에 높다란 굴뚝이 있다. KBS 다큐멘터리 3일에 소개된적 있던 〈파나이 섬의 이상한 설탕 공장〉, 한국 아이쿱 생협이 지원으로 설립된 안티케 공정무역 센터의 설탕 가공 공장이었다. 순박한 웃음을 가진 마을 사람들, 가난한 동네였고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졌을리 없었다. 대다수 어른들은 공용어인 영어를 구사하지 못했고, 지역 토착어인 일롱고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사탕 수수를 재배하는 소작농은 할값에 사탕수수를 중간 업자에게 넘길 수밖에 없다. 그 사탕 수수는 삶은 뒤 설탕을 추출하는 과정을 거치고, 다시 가공 및 포장을 한 뒤, 배나 비행기를 타고 수출되는 과정을 겪는다. 중간 업자를 몇 단계 거쳐야 하며, 결과적으로 수출이 된 나라의 유통 과정에서 보통은 가장 큰 마진률이 작용되게 된다. 산지에 있는 사람들은 1년 내내 사탕 수수를 재배해도 아이 학교를 보내기 위해 교복을 구입하거나 교과서를 사는 등의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조차 힘들다.

벨리슨 군의 설탕 공장이 설립된 이후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땅이 없는 사람들은 공장에 취직하여 일을 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월급을 받기 시작했다. 사탕 수수를 재배하는 농민들 역시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안심하여 사탕 수수 판매를 진행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공장 근처에 함께 구입이 되어 지원된 땅은 지역 회복을 위한 기간을 두게 하였고, 유기농과 공정무역 등에 대한 교육이 마을 전체에 퍼지면서 이들은 앞으로를 내다보는 삶을 꿈꾸고 있었다.

중간 거래 업자 없이 생산된 설탕은 파나이 공정무역 센터에서 포장된 뒤 각 국으로 수출이 되고 있었다. 유통 과정이 줄고, 생산 시설을 소유한 뜻 있는 사람들의 합심으로 과정이 줄어서 생긴 잉여금을 위와 같은 형태로 나눌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일까, 전체 거래량의 1%를 적립하는 공정무역 기금을 통해 그들은 개인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소유하지 않고, 공장 옆에 작은 식당을 열었다. 밥 하나에 채소 반찬 두 어개가 전부였지만, 일 하는 사람들이 모두 같이 밥을 해먹고, 이를 통해 식구가 되는 과정이 이들에겐 너무 소중한 것이다. 가난하면 이웃도, 심지어는 가족도 그렇

게 부담스러울 수가 없다. 이제 이들은 최소 밥은 마음놓고 먹을 수 있게 되었다. 마을 전체가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으며 식구가 되었다는 소리는 내 마음에 큰 공명을 가져왔다.



마을 사람들의 욕구는 다양했다. 공정무역을 통해 우리 모두 돈을 번다면 무엇을 하고 싶냐는 말에, 스페인 식민 때부터 내려오던 재래식 기계를 가지고 설탕을 만들도 늙은 농부는 당연히 사탕수수를 바르고 안전하게 재배할 수 있는 땅을 살거라 이야기했다. 땅, 나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안티케 공정무역 센터의 이름으로 땅을 구매하여 모두 더불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게 그의 남은 인생의 목표였다.

저 멀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배운 영어를 쓰며 이방인에게 말을 걸었고, 동요와 전통 놀이 등을 하고 놀았다. 아이들은 배우고 있었고, 공장에서 일하는 어른들에게 보호받으며 성장하고 있었다.

공장에 자그마한 사무실에 몸을 누이고 하루를 돌아봤다. 내게 필리핀은 아픈 손가락 중 하나였다. 2010년까지 집권했던 아로요 정부에서 벌어진 정치 살해로 목숨을 잃은 이가 1,000여명이 훌쩍 넘었다. 내가 필리핀과 관계를 맺었던 도시빈민지역 '다마얀'의 르포 기사를 작성할 때, 주민

조직의 대표 역시 부조리한 사회를 고발하는 일에 앞장서다 살해당했다. 공정여행을 처음할 때 인연을 맺었던 아이의 장학금을 만들어 지원했지만, 트라이시클(오토바이에 캡을 달고 운영하는 필리핀의 대표적인 운송수단) 운전수와 눈이 맞아 임신을 했고 지금은 썩은 바다 중턱에 있는 화장실도 없는 수상가옥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아이를 낳고 남편을 거의 못봤다는 그녀의 말에, 카톨릭 국가이기에 피임 조차 용납되지 않는 필리핀 상황에 분개했다.

공정여행이 아닌, 공정무역을 통해 벌어지는 이 사회의 작은 변화의 씨앗을 봤다. 왜 그리도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에서 공정무역 산지를 여행하는 교류가 많이 벌어지는지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 공장의 문은 모두 활짝 열려 있었다. 가난한 시골에서 흠처갈게 참 많은 공장이었다. 하지만, 공장을 비롯한 그 어느 집도 문단속의 개념이 없었다. 밤 11시가 될 때까지 쏘아지는 별을 바라보며 이야기 나눴던 공장 사람들은 새벽 2시 30분이 되자 말끔한 차림으로 출근했다. 소독을 하고 제대로 된 작업복과 작업모를 쓰고 순박한 미소를 지으며 공장 내부로 들어갔다.

그들이 게을렀던 건, 아무리 열심히 일 해도 바뀌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희망을 품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난 지구상에서 가장 부지런한 일꾼들과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일하지 않는 자를 단순히 구원하려고 할 때, 우리는 흔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란 표현을 쓴다. 벨리손 군에는 안티케에 위치한 웬만한 여행자 숙소보다 좋은 시설의 중등학교가 딱하니 세워져 있었는데 일본 자이카(JAICA)에서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설립한 학교 였다. 아이들이 살아가는 현실과 학교의 시설의 괴리는 컸다. 일본 사람들은 벨리손 군에 와본적이 없었고, 군이 속한 안티케 주에 채광 이슈가 발생했을 때부터 지역에 원조를 시작했다고 한다. 그 좋은 시설에 다 헤진 교과서를 돌려보는 아이들을 보면서 채광 이슈에 관심있던 일본을 아이들이 온 몸으로 위화감을 건디며 돕는 것은 아닌지 반문했다.

공정무역 산지를 공정하게 여행하는 방법은 고민하는 것이다. 그건 어느 책에도 쓰여있지 않고, 누구도 가르쳐 줄 수 없는 사실이다. 파나이 섬의 시푸드느 훌륭하지만 다국적기업의 패스트 푸드가 여러분의 입맛에 더 맞을 수 있다. 지역기반 렌트카의 서비스는 훌륭하지만 화려한 비디오 장치와 너른 공간이 있는 최신식 차량이 여러분에게 더 필요할 수 있다. 깔끔한 포장과 예쁜 장식으로 쌓인 설탕이나 바나나는 공정무역의 것보다 여러분에게 더 큰 구매 의지를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열고 사람을 만나고 지역을 알아갈 때 형언할 수 없는 힐링과 영감은 우리의 몸을 감싸게 된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바다로서도 여행서비스로도 2% 부족했던 공정무역 산지 파나이 섬에서 나는 공정여행을 계속 하련다. 나의 주목이 여러분에게도 짧은 배움으로 다가오길 바란다.

사람을 만나서 관계를 맺고 친구가 된다.

지역의 고유문화를 배우고, 그로부터 영감을 받으며 나의 여행으로 지역의 자립, 자존, 자주의 씨앗이 발아된다.

지구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우리는 환경과 동행하는 여행을 선택한다.

공정여행은 고민하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존재하는 신기루이다.

발행일 2014년 5월 22일

펴낸곳 **icoop** 생협

아이쿱생협



pttc · atfc



공감만세





icoop 생협

아이쿱생협



PANAY FAIR TRADE CENTER  
Philippines

pftc · aftc



공감만세

공감만세